

대구대학교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 21세기를 대비하는 戰略的 計劃을 중심으로 -

윤 희 윤**

〈목 차〉

I. 序論	3. 공간규모 및 배치형태
1. 연구목적	4.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
2. 연구방법 및 한계	IV. 大學圖書館의 戰略的 發展計劃
II. 大學 및 圖書館의 改革內容	1. 장서개발계획
1. 대학의 개혁내용과 추진일정	2. 인력 및 조직계획
2. 도서관과 관련된 개혁내용	3. 공간규모 및 배치계획
III. 大學圖書館의 現況과 問題點	4.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1. 장서구성 및 개발시스템	V. 要約 및 結論
2. 인력구성 및 조직구조	Abstract

I. 序 論

1. 연구목적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教育空間, 지식을 창출하는 研究調查空間, 지식을 응용하는 社會還元空間, 그리고 총체적 기능을 통한 人間形成空間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는 캠퍼스의 제반시설 중에서 대학도서관은 위스콘신대학의 총장이었던 오닐(R. M. O'Neil)이 “대학의 學術的 優秀性을 가늠하는 잣대이며...自尊心의 源泉이

* 이 연구는 199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다”¹⁾라고 역설하였듯이 적절한 정보자료와 적극적 정보봉사료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중핵시설인 동시에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우수한 대학도서관들은 1970년대초 컬럼비아 대학도서관의 공식문서인 自體評價報告書를 시발로 종합계획이나 전략적 계획의 형태로 장단기 발전계획을 실행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등의 대학도서관들이 長短期 綜合發展計劃, 新築計劃, 電算化計劃 등을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교육개방화, 대학평가인정제, 교수평가제, 입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캠퍼스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속조치로 도서관장서의 확충, 학술정보의 수집강화, 정보봉사력 제고방안의 모색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과정을 통하여 良質의 情報奉仕를 제공하고, 원격지의 書誌情報 및 原文情報까지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는 情報檢索에서 原文入手까지의 OSIS(One-Stop Information Servng)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대학도서관의 경우, 지난 40년간 자료수집과 봉사활동에 진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시스템도 비교적 일찍 구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및 현실적 저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하여 ‘교수들에게는 博物館(不用資料의 集積所)으로, 학생들에게는 工夫房(一般閱覽室의 表象)으로’ 각인될 정도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학도서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의 방향좌표이자 행동지침인 未來指向的 靑寫眞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교수 및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교육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학간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역

1) Robert M. O'Neil, "The University Administrator's View of the University Library," In *Priorities for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T. J. Galvin and B. P. Lynch(San Francisco : Jossey-Bass, 1982), p. 5.

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구대학교 도서관이 교수와 학생들의 혈관에 교육 및 연구정보를 주입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캠퍼스의 情報心臟部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용을 촉진시키고 유인하는 情報磁性體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운영방식과 업무내용을 재검토하여 未來指向的 發展計劃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구대학교가 신세기의 격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캠퍼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교육 및 연구정보를 총괄하는 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대학당국이 1996년 상반기에 확정·발표한 교육개혁안을 검토하고 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戰略的 發展計劃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에 관한 배경정보는 국내외의 각종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대학도서관의 현황자료는 주로 韓國圖書館統計, 全國私立大學校 圖書館協議會 會員校便覽, 대학도서관 정보화현황(1995), 대구대학교 통계연보 등에 나타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은 담당사서와 면담하여 보완한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적출하기 위한 평가준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대학설치기준령」, 「사립학교법인정관(준칙)」, 「한국도서관기준」, 「대구대학교 규정집」 등을 원용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계획 중에서 藏書開發, 人力 및 組織改編, 空間規模 및 配置計劃은 2010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學術情報시스템의 構築方案은 1996년 4월 대학당국에 제출한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확장·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외 대학도서관과의 비교평가보다는 현상분석에 치중하였다. 또한 업무영역별 장단기 세부계획은 후속과제로 남겨 두었다. 따라서 정서개발계획, 인력의 확보 및 개발계획, 조직개편계획, 건물 및 시설계획, 정보봉사계획, 자동화계획,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채택되면 구체적인 부분계획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II. 大學 및 圖書館의 改革內容

1. 大學의 개혁내용과 추진일정

정부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방향은 경쟁이나 개혁의 無風地帶였던 대학의 변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많은 대학들이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차원에서 學部制 導入, 行政組織의 改編, 教育 및 研究機能의 強化, 캠퍼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대학도 1996년 상반기에 교육개혁안을 확정·발표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은 漸進的이고 順次的 教育改革, 大學實情에 적합한 教育改革, 消費者中心의 教育改革, 社會進出에 용이한 實用的 教育實施, 그리고 大學構成員의 苦痛分擔으로 집약되며,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은 <표 1>과 같다.²⁾

(1) 사회교육(평생교육)의 장

본 대학은 障礙者 福祉라는 이념하에 전국 최초로 특수교육, 재활교육, 사회교육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정체현상이 심각하므로 이들을 활성화하고 지원

2) 대구대소식, 제21호(1996, 6. 1), pp. 10-12.

하는 적극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1999학년부터는 고교졸업생수의 격감으로 대학의 입학대상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대학에서도 입학생 미달사태가 우려된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생을 고교졸업자에서 동등학력을 소지한 사회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사회인은 직장인이므로 진학하더라도 2부 대학(야간강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선호학과도 직장과 관련된 학과일 것이기 때문에 夜間講座를 확대하고, 파트타임 학생프로그램, 週末 授業制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표 1〉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추진, ⇨실시)

개혁의 기본방향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96학년도		'97학년도		'98	'99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년도	학년도
사 회 교 육 공 간	평 생 교 육 장	야간강좌 확대, 2부대학 신설 사회교육원의 확대개편 컴퓨터 교육원의 신설 (가칭)재활병원의 신설		→				
	입학대상 자 확대	사회/직장인 입학, 주말수업 제 확대, 파트타임 프로그램						
	산 학 협 동 강 화	산학협동프로그램의 확대						
교 육 방 식	소 비 자 중 심 의 교 과 목	전공과목축소, 교양과목 확대 부전공제도 확대 전과제도 신설확대 학점교류의 상호인정 학과목의 비용개념 도입						
	첨 단 화, 고 급 화, 최 신 화	PC실습실 설치/CCC 확충 LAN/인터넷 설치완료 통합전산망 및 프로그램 새로운 학습방법 도입						
	국 제 화, 세 계 화	영어회화교육의 특성화 유학생/외국 자매학교의 교류						
	교 육							

개혁의 기본방향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96학년도		'97학년도		'98 학년도	'99 학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특 성 화 와 연 구 소 패 편	대학의 특성화	대학이념에 따른 특성화 집중육성분야로서의 특성화 지원우위로서의 특성화					
	연구소 패편	교책연구소/교책연구소 일반연구소					
다 양 화	자율적 분권적 운영	대학원 독립재산제 (산업정보대학원) 대학/학과의 자율운영방안					
	정주권 개념도입	기숙사,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 캠퍼스개방					
행 정 합 리 화	기구개편	(1차)					
	부처협조/승진에 성과개념 도입/직원사기 진작책/직원 능력개발/재교육방안			(2차)			
본부위상 재검토	분권화, 자율화						

(2) 교육방식의 개혁

교육방식의 개혁으로는 관련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교과목도 바꾸어 消費者中心의 教育體制로 전환한다. 첫째, 교과목의 개혁내용은 專攻科目 縮小(40학점 이하), 敎養科目 擴大, 副專攻制 擴大, 轉科制度 新設(20% 내), 大學間 學點交流의 相互認定, 학과목의 費用概念 도입 등이다. 둘째, 교육의 첨단화, 고급화, 최신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에 PC실습실의 설치 및 정보통신개발연구센터의 확충, LAN 및 인터넷의 설치완료(대학본부, 중앙도서관 및 대구분관의 LAN을 캠퍼스전역으로 확대, 인터넷 보강), 캠퍼스 통합전산

망 및 프로그램의 운영, 新學習方法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및 세계화에 대비하여 英語會話教育을 특성화하고, 留學生을 유치하며, 姊妹學校와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3)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먼저 학문분야별로 다른 대학보다 먼저 시작했거나 비교우위를 견지하는 분야(特殊教育, 再活教育, 社會教育, 社會福祉), 집중육성하면 가능성이 있는 분야(情報通信, 산업디자인), 대학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山林資源 및 畜産分野)를 특성화한다. 둘째, 현재의 여러 분야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설연구소를 교책연구서, 일반연구소, 재활연구소 등으로 전면 개편하거나 분할한다. 그리고 본부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학과 및 대학(원) 중심의 自律的, 分權的 運營體制를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교통불편에 따른 캠퍼스의 空洞化 現象을 방지하고 定住圈 概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기숙사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 캠퍼스를 개방한다.

(4) 행정의 합리화

본 대학은 財團轉入金이 별로 없고 學生登錄金도 대폭 인상할 수 없으므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정책적 판단에 의한 특정분야의 집중지원을 통하여 방만한 行政組織을 개편하고 원가개념에 입각한 會計制度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기존 행정기구를 기능중복의 방지와 정보화 및 첨단화에 적합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학생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졸업생의 취업에 대비하며,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동시에 특성화를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대학본부는 최소한의 집행기능만 수행하는 대신에 일선기관과 단과대학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 분권화와 자율화를 신장시킨다.

2. 도서관과 관련된 개혁내용

대학개혁의 목적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교육시장의 개방,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경쟁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고 학술 및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 제고되므로 교육 및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안에는 定住圈 概念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확충한다는 상투적인 표현만 있을 뿐, 資料蒐集 및 情報奉仕機能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교육 및 연구용 정보자료에 허기진 구성원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한심스럽고, 전공교수의 입장에서는 自愧感마저 느낀다. 물론 세무개혁에 관련내용들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으나,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도서관의 혁신방안이 교육개혁안에 내포되지 않은 것은 大學當局과 教育改革立案者들의 圖書館觀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교육방식을 개혁하고 전학이념에 부합하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장서구성이 충실해야 하며, 정보자료의 접근·검색·입수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圖書館中心의 教育方式은 講義爲主의 注入式 教育을 自律學習體制로 전환하거나 在宅學習을 시행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전공분야의 핵심자료가 절대 부족하고 극소수의 학술지만을 구비한 상태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엄청난 자가당착임을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특수교육, 재활교육, 사회교육, 사회복지, 정보통신, 산업디자인, 산림자원 및 축산분야를 특성화한다는 것은 해당분야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전국의 최상위 수준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분야의 정보자료도 당연히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구축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장서개발과 봉사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대학도서관이 학내외의 절절한 정보자료를 수집·보존·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대학의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資料蒐集活動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종래의 保管管理中心에서 利用者中心의 情報奉仕體制로 전환하며, 활동영역을 物理的 空間概念에서 假想的 空間概念으로 확장시키는 방안들을 내포한 전략적 발전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Ⅲ. 大學圖書館의 現況과 問題點

1. 장서구성 및 개발시스템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제3항(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과 제4항(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 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에 근거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적 기준에 의하면 본 대학도서관은 학생수가 15,682명이므로 470,460권(15,682명×30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855종(인문·사회·예체능계 45개 학과×10종+이공계 27개 학과×15종)의 학술지를 구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확보율은 <표 2>와 같이 도서가 92.0%이고, 학술지가 93.6%이다. <표 2>의 장서구성내용과 현행 자료수집시스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도서확보율이 법적 최저기준과 전국 대학도서관의 평균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1995년 4월 현재 전국 대학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수가 평균 37권(국립대 32권, 사립대 38)인데 비하여 본 대학도서관은 26.5권(1995년 말 현재는 27.6권)에 불과하며, 학과당 학술지의 평균 구독종수도 11.1종으로 일반대학의 평균 확보율 106.4%(국립대 91.6%, 사립대 113.1%), 학과당 평

균 구독종수 13종(국립대 11.35종, 사립대 13.81종)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 및 학술지의 확보율이 법적 기준 및 전국 사립대학도서관의 평균에 미달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 1인당 자료구입예산이 41,449원(6억 5천만원 ÷ 15,682명)으로 전국 평균인 65,070원(국공립대 84,720원, 사립대 58,560원)⁴⁾보다 적기 때문이다.

② 본 대학도서관의 자료선정업무를 보면 외국의 전공도서는 교수가, 기타 참고도서와 국내도서는 사서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례행사에 불과한 교수추천의 경우는 적당한 추천, 업자와 결탁한 추천, 대리추천, 주변장서의 추천 등으로 인하여 選定資料의 信賴性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서선정의 경우도 장서개발의 차원에서 보다는 단지 자료구입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출판사나 서적상에서 제공한 출판목록을 보고 일괄구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③ 자료구입시스템의 경우, 국내 도서와 잡지는 서점이나 출판사를 통한 直接間接購入方式을, 외국도서는 수입상을 통한 間接購入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도서의 입수기간이 지연되므로 구입방식의 다변화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정 및 주문채널을 개발해야 한다.

④ 학술지는 價格急騰, 간접거래방식에 따른 缺號增加와 遲延到着 및 豫算浪費, 經常費 性格의 豫算支出 등 도서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외국 학술지의 가격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6%⁵⁾, 1993-1994년은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 10.52%(캐나다 5.85%, 미국 11.49%, 일본 21.72%, 프랑스 6.02%, 독일 4.74%, 네덜란드 9.63%, 영국 10.91%)⁶⁾ 인상되어 자료구

3) 교육부, 대학교육정책관실, 1995 대학도서관정보화현황(서울: 교육부, 1995), p. 49, 93.

4) 韓國大學新聞, 韓國大學年鑑, 1996(서울: 동신문, 1996), p. 82.

5) Frederick C. Lynden, "Cost Analysis of Monographs and Serial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2, No. 3(1990), pp. 20-21.

6) Mark S. Davies, Nancy McGrath, and Janells McInnis, "Periodicals Price Index for Canada 1994: The Fourth Survey,"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Vol. 19, No. 3(Sept. 1994), p. 14.

입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⑤ 구입이 불가능한 정부간행물, 기술 및 연구보고서, 학협회자료, 학위논문, 회의자료 등의 灰色文獻에 대한 수집활동이 매우 부실하다.

〈표 2〉 장서구성 현황(1995년말 현재)

구분 연도	학생수	학과 수	도 서			학 술 지		
			장서수	연차증가량 (%)	법적 기준 도달율(%)	종수	증가종수 (%)	법적 기준 도달율(%)
1992	15,164	71	338,285	-	76.5	437	-	52.0
1993	15,342	72	369,746	31,461(9.3)	73.0	607	170(38.9)	71.0
1994	15,552	72	401,826	32,080(8.0)	78.3	675	68(11.2)	78.9
1995*	15,682	72	433,000	31,174(7.8)	92.0	800	125(18.5)	93.6
전국 평균	일반대학		271,843	-	74.2	904	-	106.4
	사립대학		261,223	-	82.0	826	-	113.1

*는 1995년 4월 현재의 수치임

2. 인력구성과 조직구조

(1) 인력구성

대학도서관의 인력구성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구법인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4조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에 의하면 본 대학도서관은 38명의 사서직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구성은 〈표 3〉과 같이 관장을 포함하여 총 28명이다.

도서관직원 중에서 사서직원은 22명(수서과 9명, 열람과 13명)이며, 이들은 「대구대학교 사무직원임용규정」 제4조(직급의 구분)에 따라 기술직에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인력구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 4가지를 적시할 수 있다.

〈표 3〉 인력구성 현황(1995년 4월 현재)

구분	학생 수		전체 인력					법적 기준과 도달율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직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기술직(사서)	정원	도달율(%)	1인당 봉사부담
인원(명)	14,700	982	1	2	1	2	22(25*)	38	57.8(65.8)	713(627)
계	15,682		28(31*)					38		

*는 1996년 6월 현재의 직원수임

① 도서관장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내외의 동태적인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經營管理能力, 對外交渉能力, 戰略的 計劃能力을 극대화해야만 대학도서관이 교육 및 연구적 기능을 지원하는 중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館長職의 專門化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정관(준칙) 제94조 2항은 도서관장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학당국은 관장직을 총장 직선제에 따른 論功行賞의 方便 내지 元老敎授의 敬老優待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발상과 인식은 도서관의 停滯性을 고착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사서직원수의 법적 정원은 38명인데도 불구하고 기준도달율이 57.8%(1996년 현재 65.8%)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 부족하다. 게다가 현재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학부학생수와 소장자료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奉仕負擔率이 학부학생의 3-6배⁷⁾에 달하는 교수, 캠퍼스의 배치조건, 봉사프로그램

7) Paul Metz and Elizabeth A. Scott, "A Proposed Staffing Formula for Virginia's Academic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42, No. 2(Mar. 1981), p. 131; Robert E. Burton, "Formula Budgeting: A Example," *Special Libraries*, Vol. 66(Feb. 1975), pp. 63-64.

과 교육프로그램, 분관수 등을 감안하면 더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가 약 713명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평균 601명(국립대 520명, 사립대 644명)⁸⁾이나 미국 연구도서관의 257명, 일본 대학도서관의 373명(사립대 455명)⁹⁾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며, 藏書開發이나 情報奉仕를 부실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③ 전체 직원의 구성비율이 부적절하다. 도서관업무 중에서 비전문직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2~39%이므로 약 40%에 해당하는 비전문직원을 확보하여 전체직원의 비율을 司書職 : 非司書職 = 3 : 2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대학도서관의 비전문직원은 약 23%에 불과하므로 많은 전문직원이 비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적절한 인력구성을 통한 適材適所의 配置原則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④ 人力開發을 위한 職務教育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도서관 업무내용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및 연구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인력배치나 직무분장상 적성이나 능력에 합당하는 기능과 기술을 부여하고,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승진이나 보상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인력개발 및 계속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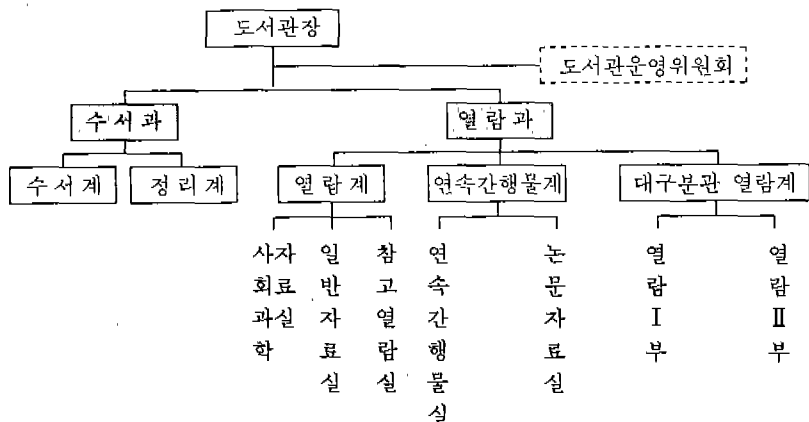
(2) 조직구조

대학도서관의 조직체제는 「학교법인정관(준칙)」 제95조 1항(도서관에 수서과·열람과와 ()를 두며...)을 준용한 「학교법인 영광학원정관」 제86조 제1항

3)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國立大學圖書館報, 第13輯(1995), pp. 25-294;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편,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경산: 동협의회, 1995), pp. 14-256.

3)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Statistics, 1993-94*(Washington, D. C. : ARL, 1995), p. 11, 38; 日本圖書館協會 編, 圖書館年鑑, 1993(東京: 同協會, 1993), pp. 251-258.

(중앙도서관에 수서과·열람과 및 대구분관을 두며...)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收書課와 整理課로 양분되는 과조직 아래에 다수의 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직능구조적 측면에서는 수서·정리·열람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機能別 組織形態를 취하고 있고, 통제구조적 측면에서는 官僚制的 模型에 근거한 集權的 形態의 階層構造를 형성하고 있다. 본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도서관의 현행 조직도

① 수서과는 기능을 중심으로 수서계와 정리계로 편성하고 있으나, 핵심업무는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주제별 출판동향의 조사·분석, 학술자료의 선정과 수집, 대학구성원의 요구과목, 자료교환 및 기증자료의 평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직 수서과장 아래에 2명의 사서직원이 수서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장서개발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人力補強과 더불어 組織改編이 필요하다.

② 열람과는 자료유형별 및 주제별 부문화 원리를 혼용하여 열람계, 연속간행물계, 대구분관 열람계로 편성하고 있다. 장서관리의 측면에서는 자료유형별 부문화가 정당할지 몰라도 특정 주제분야의 자료가 실별로 분산배치되기 때문에 利用動線이 길어진다. 일반자료는 主題別 閱覽制度를 채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별로 격리된 미완성 체제이다. 그리고 최근 CD-ROM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구입, OPAC시스템의 가동, 인터넷 접속 등으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접근 및 검색환경이 구비되었으나 檢索指導, 原文申請 및 傳達率仕機能은 매우 부실하다.

③ 위원회 조직으로는 도서관장의 자문기구인 圖書館運營委員會가 있으나, 역할이 불분명하고 활동결과를 평가하는 장치도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集書의 偏向性을 최소화하고 장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기구로 간주되는 藏書開發(資料選定)委員會나, 업무자동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圖書館電算化委員會 등도 없는 실정이다.

④ 사서직의 관장보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교수직 관장의 경영관리기능을 보좌하고 관장과 과장들간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司書職 副館長制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공교수가 관장으로 보임될 경우에는 선임과장을 한시적인 부관장으로, 비전공 교수가 관장에 보임될 경우에는 전공교수를 부관장으로 보임하는 신속적인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⑤ 현재 수서과에 소속된 전산팀은 2명(사서직과 전산직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산팀은 업무전산화,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갱신·보완, 시스템의 통합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해야 하므로 人力擴充과 더불어 組織擴大가 필요하다.

3. 공간규모 및 배치형태

(1) 공간규모와 열람석

대학도서관 건물의 공간규모와 열람석은 「대학설치기준령」 제8조 제3항 별표 2(純使用面積(N))=0.73×총학생정원(T)m²+80m², 共有面積=0.65×순

사용면적 (N)m²)와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열람실에서는 총학생정원의 20 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에 근거하여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본 대학도서관이 확보하고 있는 전체 공간 규모 및 열람석 현황을 분석하면 <표 4>와 같이 建築物面積은 17,797m²(확보를 92.7%), 閱覽席은 2,800석(확보율 89.3%)으로 나타났다.¹⁰⁾ 그리고 실제 도면을 근거로 중앙도서관 및 대구분관의 공간구성요소별 점유면적을 계산한 결과, <표 5>와 같이 중앙관의 일반열람공간이 2,298m², 자료수장 및 봉사직원공간이 5,362m², 기타 직원공간이 924m², 공유공간이 7,468m², 정보통신개발연구센터가 924m², 대구분관이 3,119m²이다.

<표 4> 공간규모 및 열람석 현황(1995년 4월 현재)

구 분	학생수	건물면적(m ²)				열람석		
		확보기준	확보현황	확보율 (%)	1인당 면적	확보 기준	확보 현황	확보율 (%)
대구대학교 도서관	15,682	19,021 (5,764평)	17,797 (5,393평)	92.7	1.13	3,136	2,800	89.3
전국평균	일반대학	-	-	92.0	1.12	-	-	119.8
	사립대학	-	-	95.7	1.17	-	-	128.2

<표 4~5>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현재의 「대학설치기준령」은 도서관의 순사용면적을 학부학생수만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학생수가 감소하는 대학에서는 자료가 증가하여도 도서관의 연면적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도서관의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藏書增加量과 家具配置損失率 등을 감안하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10) 대구대학교, 통계연보(경산: 대구대학교, 1995), p. 107.

〈표 5〉 공간구성요소별 점유면적 현황

면적		실명 또는 공간명(층)	점유면적(평)	소계(평)	계(평)
구분					
중 앙 도 서 관	일반 열람 공간	제1열람실(1층)	462m ² (140평)	2,298m ² (696평)	17,797m ² (5,393평)
		제2열람실(1층)	462m ² (140평)		
		제3열람실(2층)	462m ² (140평)		
		제4열람실(대학원열람실)(지하층)	276m ² (84평)		
		제5열람실(지하층)	636m ² (193평)		
	자료 및 봉사 직원 공간	연속간행물실(4층)	924m ² (280평)	5,362m ² (1,625평)	
		참고열람실(4층)	462m ² (140평)		
		논문자료실(4층)	462m ² (140평)		
		인문과학자료실(3층)	462m ² (140평)		
		사회과학자료실(3층)	462m ² (140평)		
어문학자료실(3층)		462m ² (140평)			
과학기술/예술자료실(3층)		462m ² (140평)			
직원 공간	동양서 폐가서고(2층)	462m ² (140평)	924m ² (280평)		
	서양서 폐가서고(5층)	462m ² (140평)			
	특수자료실/문서보존실(5층)	462m ² (140평)			
	시청각실(지하층)	280m ² (85평)			
	관장실, 수서계, 전산실(1층)	462m ² (140평)			
공유 공간	정리계(1층)	462m ² (140평)	7,468m ² (2,263평)		
	복사실(1, 3층)				
	카드목록공간(3층)-용도폐기				
	휴게실, 변전실, 보일러실(지하층) 계단, 통로, 화장실 등				
		정보통신개발연구센터(2층)	924m ² (280평)		
대 구 대 학 대 교 대 학 관	전체 공간	제1열람실(1층) 제2-3열람실, 연속간행물실(2층) 참고과제실, 대출실(3층) 제4열람실(4층)	3,119m ² (945평)		

② 閱覽席 基準은 미국이 학생수의 20-25%를, 영국은 정규학생 4-10명 당 1석을, 일본은 학부학생용의 20%와 대학원생의 30%로 설정하고 있다¹¹⁾. 그러나 국내 대학생들의 가정학습환경이 선진국보다 열악하므로 현재의 법적 기준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 대학도서관의 열람석도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열람석 확보율은 전체 평균이 119.8%(국립대 97.4%, 사립대 126.8%)이며, 학생 1인당 좌석수는 0.24석(국립대 0.19석, 사립대 0.25석)¹²⁾인데 비하여 본 대학도서관은 0.18석에 불과하다.

③ 공간구성요소별 適正 配分率을 보면 국립대학도서관은 열람실이 37%, 서고가 18%, 관리부분이 24%, 공유면적이 21%이고, 순면적이 79%¹³⁾이다. 이에 비하여 본 대학의 중앙도서관은 열람전용공간이 15.7%, 자료공간(자료실내의 직원공간과 이용자공간을 포함)이 36.5%, 업무전용공간이 6.3%. 공유면적이 50.9%이므로 순면적이 49.1%에 불과할 정도로 空間活用率이 극히 저조하다.

1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No. 9 (Oct. 1975), p. 294; Library Association, College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Group, *Guidelines for College Libraries: Recommendations for Performance and Resourcing*, 5th ed. (London: LA, 1995), p. 45;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法規基準總覽(東京:同協會, 1992), p. 468.

12) 교육부, 前掲書, pp. 36-39.

13) 文敎部, 大學圖書館의 計劃: 施設計劃書作成을 위한 一般事項과 施設現況(서울: 文敎部, 1988), p. 42.

(2) 공간배치형태

도서관의 외형이 훌륭하더라도 내부공간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당초에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간배치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림 2>에 제시한 중앙도서관의 층별 空間配置圖(특히 음영부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5층	특수자료실	대학문서보관실	폐가서고(양서)			
4층	연속간행물실		복사실	참고열람실	논문자료실	
3층	대출실(인문/사회/과학기술/어문학자료실)					
2층	정보통신연구개발센터		일반열람실(3)		폐가서고(동서)	
1층	일반열람실(1, 2)		출입구 (이용자접근)	복사실	정리계 수서계 전산실	관장실 ←직원 접근
지하	일반열람실(5) 대학원열람실(4)		시청각실		변전실/보일러실	

<그림 2> 공간배치의 현황(단면도)

① 자료공간은 이용자동선을 최우선 고려하여 이용도가 높은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학위논문, 기본도서 등을 저층에 배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공간인 2층에 정보통신개발연구센터가 점유하고 있어 공간활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② 자료실내의 이용공간은 열람테이블, 개인연구석, 검색단말기 등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長方形이나 中心部 正方形(central square)으로 구성하여 공간낭비를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③ 일반열람실이 이용공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의 주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서관 건물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일반열람실은 별도의 인접건물에 위치해야 도서관을 자료중심의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유리하고 내부소음도 줄일 수 있다.

4.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본 대학도서관은 업무전산화를 전제로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제1단계(1988년 1월-1994년 7월)는 전산화의 기초단계로서 업무분석과 목록시스템의 개발, 동양서 및 학위논문의 데이터베이스화, 바코드 부착작업 등이 진행되었다. 제2단계(1994년 8월-1996년 2월)에서는 LINNET System의 도입과 변환, 대출 및 반납시스템의 자동화, 인터넷 접속, Tattle Tape의 부착, CD-NET의 도입, 바코드 시스템의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제3단계(1996년 3월 이후)는 전용 주전산기인 Alpha 2100의 도입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Client/Server 및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으로 변환하고, 웹(WWW)을 구축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안정화하는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별 추진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개발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는 업무전산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업무전산화의 현황과 개발계획

업무별	개발완료	미개발 및 개발계획
수서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원부 작성 · 도서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검수, 가격조사, 복본조회 · 예산관리, 환률관리, 정산처리 · 각종 양식과 서식, 통계자료
정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착도서원부 · 동양서 D/B 구축 · 통계작성, 라벨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기호의 자동변환(KDC→DDC) · 도서기호의 자동생성 · 분담/협동목록
대출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자동화, 예약제도 · 통계생산, 연체통지서 · Bar-Code의 자동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 자료폐기프로그램 · 대학원생 대출자동화
연속간행물/ 학위논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명 입력 · 학위논문 D/B 구축 · 자동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체킹, 클레임 · 목차색인 D/B · 연간물 자동주문프로그램
정보봉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착도서봉사 · 인터넷 접속 · 정보검색용 D/B 구비 · OPAC가동, 온라인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DB의 온라인 검색봉사 · 도서관DB의 원격지 접근봉사 · 학술지의 목차 및 원문제공봉사 · DB의 분석 및 가공업무

그러나 <표 6>에서 수서업무는 서브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저조하며, 정리 시스템은 分類記號의 自動變換, 圖書記號의 自動生成, 타 도서관이나 서지유틸리티와의 分擔目錄이 후속과제로 남아 있다. 연속간행물시스템에서는 학술지의 자동체킹 및 클레임, 연간물 자동주문프로그램, 목차색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미개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전산화의 요체로 간주되는 정보검색시스템에서는 외부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접근 및 검색, 학술지의 온라인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업무전산화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학술정보시스템을 지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변수들과 구조적 요인들이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①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전략적 계획, 장단기 발전계획, 실행 계획, 부문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도서관 책임자들이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다분하고, 계획을 수립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데 따른 유효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② 정보봉사의 무게중심이 물리적 공간내에서의 制限的 資料提供奉仕에서 캠퍼스정보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하여 서지 및 원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추적하는 情報檢索 및 提供奉仕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는 정보기술의 마인드화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반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③ 도서관의 전산업무는 문헌정보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충분한 실무경험을 전제로 복잡다양한 서브시스템의 분석, 서지정보의 이해와 조직, 관련프로그램의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유지·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은 전산인력(전산직, 전산담당 사서직, 전산운영요원)을 1개관당 평균 6.4명(전산직 0.4명, 사서직 4.2명, 기타 1.76명)으로 구성하고 있다.¹⁴⁾ 그러나 본 대학도서관은 1996년 3월부터 전담 직원 2명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바람직한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기

14) 교육부, 前揭書, p. 117.

대하기 어렵다.

④ 업무전산화에 기반한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용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적절한 정보자료를 적시에 봉사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대학도서관은 소장자료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거의 구축하였고 대출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지만, 다른 서브시스템들의 미개발로 시스템 상호간의 연계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IV. 大學圖書館의 戰略的 發展計劃

대학도서관은 국내외의 학술 및 연구정보를 통정하여 적시에 봉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황분석에서 논급하였듯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태적 지위로서의 大學象徵物이나 부정적 표상으로서의 博物館의 形象이 구성원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본 대학도서관이 캠퍼스의 情報心臟部와 物理的 化身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발전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서개발계획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봉사대상자의 규모는 16,000명 정도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1999학년부터 고고졸업생수가 격감하여 대학의 입학대상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995년 현재 학생정원인 15,682명(학부생 14,700명+대학원생 982명)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봉사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도서 및 학술지의 최종 확보계획은 미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집서수준 중에서 교수 및 박사과정의 연구활동까지

적절하게 지원하는 研究水準¹⁵⁾을 지향하여 <표 7>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도서관의 경우, 1차 목표연도(2000년)까지는 연간 10%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697,000권(학생 1인당 43.5권)을 확보한다. 법적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2차 목표연도(2005년)까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폐기율(연 3%)을 적용하여 연간 7%의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975,000권(학생 1인당 60.9권)을, 3차 목표연도(2010년)까지에는 연간 4%씩 증가시켜 1,185,000권(학생 1인당 74권)을 확보한다. 반면에 학술지는 연간 15%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1차 목표연도에 1,605종(학생 1인당 0.1종, 학과당 22종)을, 2차 목표연도에 3,224종(학생 1인당 0.1종, 학과당 48종)을, 3차 목표연도에 6,482종(학생 1인당 0.4종, 학과당 90종)을 확보한다.

<표 7> 도서 및 학술지의 확보계획

구분 연도	봉사대상자 (학생수)	도서 확보계획		학술지 확보계획	
		확보책수 (연간증가율)	학생 1인당 확보기준(권)	확보종수 (연간증가율)	학생 1인당 확보기준(종)
1996-2000	16,000	697,000(10%)	43.5	1,605(15%)	0.1
2001-2005	16,000	975,000(7%)	60.9	3,224(15%)	0.2
2006-2010	16,000	1,185,000(4%)	74.0	6,482(15%)	0.4

그러나 양적 확보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질의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學問領域別 專擔司書制를 도입하고 그들에게 대학원과정을 비롯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수의 추천방식도 分期別 또는 月別 推薦制로 바꾸어야 한다. 자료구입의 경우는 사무실 중심의 구입방식을 현물중심의 現場購入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특히 외국자료는 代行去來方式에서 直去來方式으로 전환해야 한다. 學術誌의 過年號는 일괄

15) Rolf Hasslw and Annika Sverrung, "Deselection of Serials : The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Library Method," *Collection Management*, Vol. 19, No. 3/4(1995), pp. 153-154.

구입하거나 마이크로형태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구독잡지의 주기적인 평가로 선택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寄贈資料와 灰色文獻에 대한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사서를 배정하여 수집기준을 설정하고, 기관별로 자료성격과 발간정보를 정비하여 수집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전공별 주요 연간물은 매년 자동주문하거나 기증의뢰하는 특별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인력 및 조직계획

(1) 인력확보계획

대학도서관의 인력확보계획은 <표 7>에 제시한 봉사대상자의 예상규모와 장서확보기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사서직원 배치기준, 그리고 <Ⅲ-2-(1)>에서 언급한 비전문직원의 구성비율을 근거로 <표 8>과 같이 설정한다. 즉, 1차 목표연도에는 법적 기준의 70%(사서직 36명+비사서직 24명)를, 2차 목표연도에는 80%(사서직 53명+비사서직 35명)를, 최종 목표연도에는 90%(사서직 69명+비사서직 46명)까지 확보한다.

<표 8> 인력확보 및 조직규모계획

구분 연도	봉사대상자 (학생수)	소장자료수 (권)	인력확보기준(명)			인력확보계획 (확보율)	조직규모계획 (과)
			사서직	비사서직	계		
2000	16,000	697,000	52	34	86	60(70%)	3-4
2005	16,000	975,000	66	44	110	88(80%)	4-5
2010	16,000	1,185,000	77	51	128	115(90%)	5-6

이러한 인력확보계획과 더불어 館長職의 專門性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학이 <Ⅱ-1>에서 언급한 교육개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혁신과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서관의 개혁은 관장임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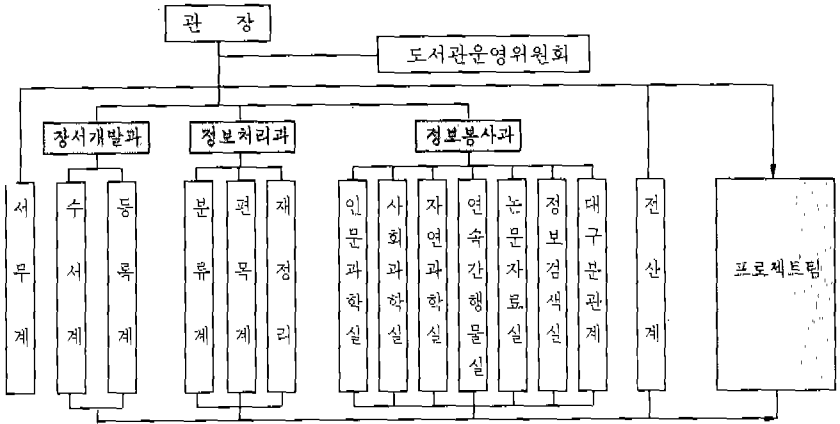
관한 구습을 타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관장직에는 專攻 및 關聯 學科 教授를 보임하되, 전문성을 구비한 관장의 보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선택으로 行政經驗이나 經營知識이 풍부한 교수를 보임해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학설치령 및 학교법인정관(준칙)의 館長補任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1급 정사서를 관장에 임용하고 교수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職務教育, 大學院 教育, 海外 研修制度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확장시키는 방안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조직개편계획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는 대학 및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략용 프레임워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과의 적정 인원을 3-4계, 18-24명¹⁶⁾으로 간주할 때, 2000년대에는 <표 8>에 제시한 것처럼 조직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전술한 문제점과 향후의 봉사대상자 수, 소장자료 수, 직원수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段階別 組織改編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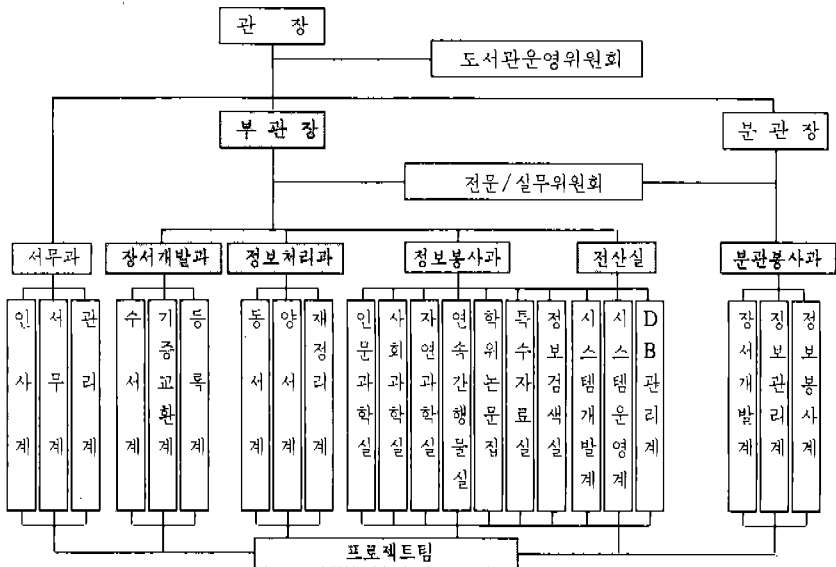
제1단계는 봉사대상자수가 16,000명, 직원수가 60명, 소장자료수가 70만권에 육박하는 2000년까지로, 현재의 2과 4계를 <그림 3>과 같이 3과 14계(실)로 개편한다. 이 조직도의 특징은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의 하나로 과명칭을 시대상황에 맞게 전면적으로 변경한다. 또한 藏書開發課에서 사무중심의 스태프직능을 분리시킨 庶務係와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係水準의 電算室을 관장직속으로 설치하며, 情報奉仕課의 하부조직을 학문영역별로 재편성한다. 그리고 정보검색실을 신설하여 OPAC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한다.

16) 孫正彪 외, 慶北大學校 圖書館 發展計劃에 관한 研究(大邱:慶北大學校, 1989), p. 49.



〈그림 3〉 2000년의 조직개편모형

제2단계는 봉사대상자수가 16,000명, 직원수가 115명, 소장자료수가 120만 권에 육박하는 2010년까지로, 제1단계의 3과 14계(실)를 〈그림 4〉와 같이 6과 22계(실)로 개편한다. 이 조직도의 특징은 관장의 경영관리기능을 보좌하고 실무과장들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는 副館長制를 신설하고, 藏書開發課의 자료수집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情報奉仕課의 주제별 자료실화로 학술정보의 접근 및 제공기능을 강조한다. 그리고 電算室을 課水準으로 격상시켜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대구분관제를 분관봉사과로 확대·개편한다. 그러나 도서관이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거나 서지유틸리티를 통하여 대다수의 간접봉사업무를 분담처리하게 되면 收書整理部와 情報奉仕部로 양분하는 조직형태로 채택한다. 물론 기능별 조직의 역기능을 해소하면서 환경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접봉사부문의 전문사서들을 직접봉사부문에 집중배치하고, 主題別 部門化를 강화하며, 分權化와 分散化를 지향한다. 그리고 프로젝트팀의 경우는 경계영역의 업무와 상호관련된 업무의 해결, 경영평가, 장단기 발전계획, 장서개발계획, 네트워크축, 신정보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



〈그림 4〉 2010년의 전략적 조직모형

마지막 단계인 2010년 이후에는 정보통신개발연구센터와의 유기적인 결합이나 통합을 위한 戰略的 組織改編計劃에 착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학교 도서관이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업무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접근 및 검색환경이 가상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내의 정보네트워크는 물론 인터넷을 비롯한 외부 정보시스템의 접속창구인 정보통신개발연구센터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격적인 통합과 유기적인 협력 중에서 어느 방식이 더 바람직한가. 통합조직의 사례로는 도서관이 전자계산소를 흡수한 소위 컬럼비아(Columbia)형, 도서관이 전자계산소에 흡수된 카네기-멜론(Canegie-Mellon)형, 그리고 양자의 리더십을 공유하는 스탠포드(Stanford)형이 있다.¹⁷⁾ 大阪府立大學의 總合情報센터는 양자를 통합하여 3개부(학술정보부, 정보시스템부, 사무부), 4개과(총무과, 정보관리과, 정보봉사과, 정보시스템

과)를 두고 도서관·정보기능, 정보통신의 처리·관리기능, 개방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⁸⁾ 그런가 하면 유기적인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거를 보면, 전자계산소는 학사·행정관리의 지원, 전산교육, 정보통신업무 등에 초점을 맞추며 비용-효과를 추구하는 데이터중심의 축적시스템인데 비하여 도서관은 고도로 구조화된 정보자료와 데이터베이스의 재고관리, 정보봉사, 자료이용교육에 치중하는 봉사지향적인 자료중심의 학술정보시스템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두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자격요건, 대학에서의 지위, 동기화,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학도서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접근도구를 구조화하고 신봉사제품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요구변화에 대처하는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소와 통합하거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대학의 경우도 다운사이징이 아닌 리엔지니어링의 차원에서 도서관과 정보통신연구개발센터의 協力強化 내지 統合方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조직의 文化差異에서 발생하는 緊張狀態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공간규모 및 배치계획

(1) 공간규모계획

가) 공간구성요소별 면적기준

대학도서관의 공간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성요소별 소요면적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학생 및 직원 1인당, 가구 및 열람석당 소요면적 등에 대한 소요면적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18) 和田 隆, “新館紹介: 大阪府立大學總合情報センター” 大學圖書館研究, 第43號(1994, 3), pp. 96-104.

다.¹⁹⁾

먼저 이용공간 가운데 일반열람실의 학생 1인당 소요면적은 학부학생이 2m², 대학원생이 2.8m², 자료이용공간에서의 1인당 면적은 일반자료실이 2.5m², 참고열람실이 2.8m², 연속간행물실과 논문자료실이 2.32m², 신문자료실이 2.0m², 시청각자료실이 3.5m², 정보검색공간이 2.2m², 기타 이용공간이 2.32m² 정도이다. 다음으로 자료수장공간 중에서 2련 6단 양면서가 1개당 소요 면적은 개가제 서고가 5.3m²(폐가제 서고는 3.63m²),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논문자료실이 각각 5.3m² 정도이다. 그리고 시청각자료실(인쇄자료공간의 10%가 적정 공간임)의 수장가구 1개당 소요면적은 지도함(120cm×70cm)이 3.6-4.6m², 마이크로피쉬 보관함(20,000매 기준)이 2.58m², 슬라이드 캐비닛(5,000장 기준)이 1.58m²이며, 기타 버티칼파일 캐비닛(45cm×75cm)·음반보관함(1,000매 기준)·캐세트 테이프 보관함(30du 기준)·마이크로 필름 보관함(800릴 기준)·CD-ROM 캐비닛이 각각 1.61m²이다. 인적 공간은 관장실(부속실)이 42(15)m², 부관장(분관장)실이 12-23(30)m², 과장실이 12-14m²이고, 전문직원의 1인당 평균 면적은 10m²(수서직원 10m², 정리직원 11.6m², 대출직원 6.9m², 정보봉사직원·행정/관리직원·전산직원 9.3m²이며, 보조직원(학생보조원)은 6.9(4.65)m², 회의실과 휴게실은 각각 직원 1인당 2m²와 1m² 정도이다. 그 외에 출입구와 로비, 통로와 계단, 편의 시설, 기기실, 창고 등의 공유공간은 이용·자료·직원공간의 25%(연면적의 20%)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주요 점유공간이 산출되더라도 실제로 서가, 가구, 비품,

19) K. D. Metcalf,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s*, 2nd ed. by P. D. Leighton and D. C. Weber(Chicago : ALA, 1986) ; Library Association, op. cit., ;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Facilities Planning and Management Manuals*, 7 Vol. Technical Report No. 17 (Boulder : WICHE, 1971) ; 랄프 이 엘즈워스, 大學圖書館建築計劃, 李炳穆 譯(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2) ; 손정표, “대학교도서관의 직원·자료·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 K대학교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본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정보기기 등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건물구조로 인한 공간손실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간계획을 위한 연면적을 산출할 때는 純面積의 6%에 해당하는 家具配置損失率(configuration loss rate)²⁰⁾을 가산해야 한다.

나) 소요공간의 규모와 확보방안

본 대학이 2010년에는 학생수를 16,000명(학부생 15,000명+대학원생 1,000명), 교수수를 504명(1과당 7.2명)을 유지하고, 도서관의 장서와 직원을 각각 1,185,000권(학술지 6,482종)과 115명(사서직원 69명+비사서직원 46명)을 확보한다고 가정할 때, 상술한 소요면적기준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연면적을 積算方式으로 산출하면 <표 9>와 같다. 즉, 2010년의 대학도서관은 현재의 17,797m²보다 무려 13,462m²가 증가한 31,259m²(중앙관 25,780m²+대구분관 5,479m²)의 공간면적(일반열람 및 자료이용공간 : 자료수장공간 : 직원공간 : 공유공간=31.4% : 43.3% : 5.3% : 20.0%)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수 년내에 이전하게 될 정보통신연구개발센터의 점유공간(924m²)을 도서관공간으로 확보하더라도 중앙관은 10,178m²(3,084평)가 부족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공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열람실(소요공간 4,909m²)을 중앙관과 연결되는 위치에 신축해야 한다. 나머지 부족공간은 카드목록실(3층)을 개조할 경우에 활용가능한 공간(282m²), 일부 자료의 폐가제 운영과 별무이용자료를 위한 보존서고를 확대·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공간, 그리고 현재 공간점유율이 과도한 공유면적(50.9%)의 비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대신에 순사용면적의 비율을 75% 정도로 높일 경우에 확보되는 공간 등으로 해결한다.

20) Aaron Cohen and Elaine Cohen, *Designing and Space Planning for Libraries: A Behavioral Guide*(New York : R. R. Bowker, 1979), p. 84.

(표 9) 2010년의 공간규모계획

1. 一般閱覽室 資料利用空間	
① 학부학생 열람석(총학생정원의 25%) : $4,000\text{석} \times 2\text{m}^2 =$	8,000 m^2
② 대학원생/교수 열람석(총정원의 30%) : $451\text{석} \times 2.8\text{m}^2 = 1,$	263 m^2
③ 가구배치손실율 : $(8,000\text{m}^2 + 1,263\text{m}^2) \times 0.06 =$	556 m^2
④ 소 계	9,819 m^2
2. 資料收藏空間	
① 도서 : $1,185,000\text{권 } 600\text{권} / \text{서가} = 1,975\text{개} \times 5.3\text{m}^2 =$	10,468 m^2
② 학술지 : $6,481\text{종 } 30\text{종} / \text{전시가} = 216\text{개} \times 5.3\text{m}^2 =$	1,145 m^2
③ 시청각자료 : 인쇄자료공간의 10% =	1,161 m^2
④ 가구배치손실율 : $(10,468\text{m}^2 + 1,145\text{m}^2 + 1,161\text{m}^2) \times 0.06 =$	766 m^2
⑤ 소 계	13,540 m^2
3. 職員空間	
① 도서관장(간부회의 겸용) $42\text{m}^2 +$ 부속실 $15\text{m}^2 +$ 분관장 $23\text{m}^2 =$	80 m^2
② 사서직원 : 69명(부관장 및 각 과장 $12\text{m}^2 \times 6\text{명} +$ 전문직원 평균 $10\text{m}^2 \times 63\text{명} =$	702 m^2
③ 비사서직원 : 46명(사서직원수의 2/3) \times 평균 $9.3\text{m}^2 =$	428 m^2
④ 회의실(세미나실) : $115\text{명} \times 2\text{m}^2 =$	230 m^2
⑤ 휴게실 : $115\text{명} \times 1\text{m}^2 =$	115 m^2
⑥ 가구배치손실율 : $(80\text{m}^2 + 702\text{m}^2 + 428\text{m}^2 + 230\text{m}^2 + 115\text{m}^2)$ $\times 0.06 =$	93 m^2
⑥ 소 계	1,648 m^2
4. 共有空間	
① 공유공간 : 이용공간, 자료공간, 직원공간의 25% $(9,819\text{m}^2 + 13,540\text{m}^2 + 1,648\text{m}^2) \times 0.25 =$	6,252 m^2
延面積 = $9,819\text{m}^2 + 13,540\text{m}^2 + 1,648\text{m}^2 + 6,252\text{m}^2 =$	31,259 m^2 (9,472명)

2. 공간배치계획

전술한 <그림 2>의 중앙도서관 공간배치도에서 제된 문제점들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배치방식의 우선순위를 자료공간, 이용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의 순으로 설정하되, <그림 5>와 같이 주요 자료공간(음영부분)을 중심으로 전면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의 공간구성비율은 利用空間을 40-50%(일반열람실 20-25%, 자료열람실 20-25%), 資料收藏空間을 25%(자료이용공간을 포함하면 40-45%), 職員空間을 5-10%, 共有空間을 20%(공용 10%, 기계실 5%, 기타 5%)로 배정하여 순사용면적의 점유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5층	대학문서보관실		특수자료실 (마이크로필름실)		시청각실			
4층	보존서고	복사실	자연과학자료실(일반도서, 참고도서)					
3층	보존서고	복사실	사회과학자료실(일반도서, 참고도서)					
2층	보존서고	복사실	인문과학자료실(일반도서, 참고도서)					
1층	연속간행물	정 검 보 색 실	복 사 실	출입구 ▼▲	정보 처리과	서무과 장서개발과	관장/ 부관장	◀ 직원
지 하	연속간행물 보존서고		학위논문실		전산실	변전실/보일러실		

<그림 5> 공간배치계획의 단면도(2010년)

구체적으로 자료공간은 이용도가 높은 연속간행물, 일반도서, 학위논문 등을 저층에 배치하되, 주제별 자료실은 이용빈도를 감안하여 人文科學資料室(예제능 포함), 社會科學資料室, 自然科學資料室의 순으로 저층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정 자료실내에서는 동양서·서양서·참고도서를 구획하여 수장하며, 別無利用資料는 각 자료실이 위치하는 층내에 保存書庫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자료실내의 열람공간은 이용자가 집중되거나 다변적인 공간(열람테이블, 출납카운터, 검색단말기 등의 점유공간)을 정방형으로 구성하여 중앙에 배치하는 中心部 正方形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열람실은 도서관의 기능공간과 분리해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

4. 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대학도서관이 구축해야 하는 학술정보시스템은 업무전산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주전산기의 도입을 계기로 네트워크중심의 통합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2000년대를 대비하는 전략적 계획의 차원에서 본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시스템, 가칭 OASIS(Online Automatic Scholarly Information System)의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²¹⁾

(1) 기본목표

학술정보시스템이 구현해야 하는 基本目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 학술정보시스템은 수집매체의 다양화, 장서개발 및 관리기능의 제고, 협동수서·분담목록·온라인 상호대차시스템의 강화, 목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축적 및 처리기술의 고도화, 업무자동화를 통한 통합시스템화, 컴퓨터를 이용한 소급정보 및 최신정보의 망라적 검색, 이용중심의 적극적인 정보봉사 등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기능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정보봉사활동은 물리적 공간내에서의 제한적인 자료제공 봉사에서 캠퍼스정보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의 서지 및 원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추적하는 정보검색 및 제공봉사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구축될 학술정보시스템은 종래에 중시되었던 열람·대출·참고업무 보다는 정보의 접근·검색·제공봉사를 강화함으로써 정보봉사력을 극대화한다.

③ 대학도서관의 업무별 또는 기능별 시스템화를 전제로 하는 학술정보시스템은 경영합리화를 지향하도록 한다. 수작업환경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정보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시간가치를 제고시키고 기회비용을 절

21) 윤희운 외, 대구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경산 : 대구대학교, 1996, pp. 131-143.

감하는 한편, 양질의 각종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도서관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2) 구축방향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장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내부정보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미소장자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검색 및 원문입수의 한계나 장애를 제거하는데 있으므로 시스템의 構築方向과 段階別 推進內譯도 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 전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전산기가 도입된 이상, LINNET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는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되, 본 대학의 환경변수(학과구성, 이용규모, 도서관의 운영시스템 등)가 시스템을 개발한 포항공과대학과 매우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수정하고 보완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범용화를 구현한다. 정보데이터의 축적 및 국내외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 표준방식인 MARC(US MARC, KORMARC)을 채택하고 최신 버전을 입수하여 보완하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치중한다. 그 다음에는 국내의 학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따르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MULTI-MARC 또는 UNI-MARC 체계를 도입한다. 그리고 현재의 분류시스템(KDC)이 호환성을 지니도록 듀이십진분류법(DDC)으로 전환한다.

③ 시스템의 運營體制를 정보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한다. 향후 1-2년내에 캠퍼스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므로 중앙도서관과 대구분관을 양대 축으로 각각의 캠퍼스에 산재하는 교수연구실, 학과, 직부속기관 등을 캠퍼스웹(Campus-Wide Web)으로 연결하는 원격지 정보접근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외 정보봉사기관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대학 전체의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모든 단위기관이나 연구실에서 OP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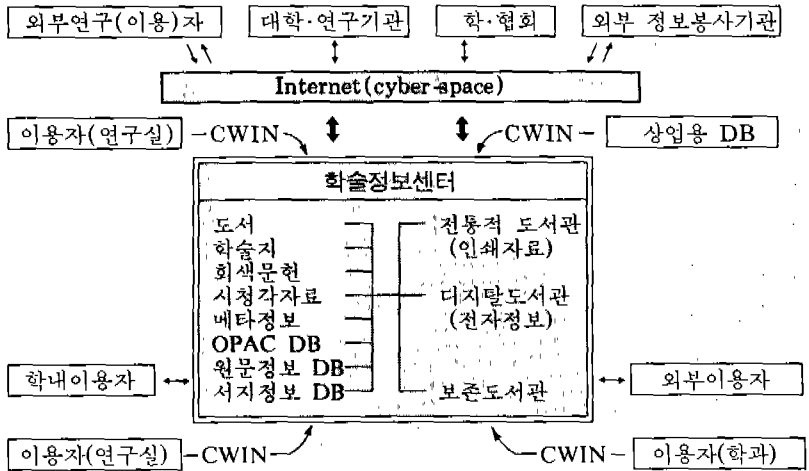
CD-ROM 등을 비롯한 관내외의 서지 및 원문정보의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한다.

④ 情報檢索室을 설치한다. 대학도서관의 정보검색이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OPAC의 검색법, CD-ROM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절차, 인터넷의 접속과 검색법, 검색정보의 신속한 입수방법 등의 정보접근·검색·입수방식에 대한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검색실을 설치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검색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를 추적하고 해독할 때 정보구조 및 정보기술, 신정보매체, 정보의 생성과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이해력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한다.

⑤ 電子圖書館의 기반을 조성한다.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CD-ROM화, 디지털화에 따른 원격지 검색환경이 보편화되면 학술정보시스템의 기능제고를 위한 전자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자료 또는 도서관전체의 디지털화 보다는 선별적인 디지털 계획이 바람직하다.

(3) 구축모형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은 傳統的 圖書館, 디지털도서관, 保存圖書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학술정보센터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정보시스템도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국내외 서지유틸리티나 대학도서관 및 정보기관들과 정보자원을 공유하도록 접근채널을 다양화해서 情報資料의 接近·檢索·提供能力을 제고시켜야 하므로 개념모형도를 <그림 6>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6〉 학술정보시스템의 개념모형도

따라서 〈그림 6〉과 같은 학술정보시스템의 모형이 구축되면 정보수집 및 처리시간의 단축과 효율성의 제고, 수장공간의 최적화, 시공간적 접근제약의 극복에 따른 정보봉사력의 극대화, 국내외 서지 및 원문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중개기능의 강화, 정보검색 및 원문제공 채널의 다양화와 신속화로 인한 이용자 시간가치의 극대화, 검색단말기를 통한 최신정보주지봉사로 인한 대학구성원들의 연구의욕과 자료이용의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학술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학도서관의 5대 난제로 간주되는 情報入手의 適時性, 藏書構成의 衡平性, 保存空間의 活用性, 遠隔地 情報資料의 接近可能性, 時空間的 制約을 초월한 提供可能性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대구대학교 도서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적시한 다음, 21세기를 대비하는 전략적 계획의 측면에서 藏書開發計劃, 人力 및 組織計劃, 空間規模 및 配置計劃, 學術情報시스템의 構築計劃을 제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서개발계획의 경우, 집서목표를 研究水準으로 설정하여 1차 목표연도에는 도서와 학술지를 각각 697,000권과 1,605종을, 2차 목표연도에는 975,000권과 3,224종을, 3차 목표연도에는 1,185,000권과 6,482종을 확보한다. 그리고 양질의 장서개발을 위한 學問領域別 專擔司書制의 導入, 教授推薦方式의 分期別化, 現場購入시스템 및 直去來方式의 채택, 寄贈資料 및 懷色文獻의 蒐集強化, 年刊物 特別管理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력계획에서는 1차 목표연도에 법적 사서배치기준의 70%(36명)를, 2차 목표연도에 80%(53명)를, 마지막 목표연도에 90%(69명)를 확보한다. 이와 병행하여 전공 및 관련학과 교수를 館長職에 보임하여 專門性を 확보하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職務教育, 大學院 教育, 海外 研修制度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직개편계획의 경우, 제1단계는 3과 14계(실)로, 제2단계는 6과 22계(실)로, 마지막 단계는 리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도서관과 정보통신개발연구센터의 有機的 結合이나 統合方案을 모색해야 한다.

3. 공간규모계획의 경우, 2010년에는 약 31,259m²(9,472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중앙관 근처에 일반열람실을 신축하고, 카드목록실을 전용하며, 보존서고를 설치하여 純使用面積의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반면에 공간배치계획에서의 면적배분비율은 一般閱覽室을 20-25%, 資料利用 및 收藏空間을 40-45%, 職員空間을 5-10%, 共有空間을 20% 정도로 배정한

다. 그리고 자료공간은 연속간행물과 일반도서 등을 우선배치하되, 주제별 자료실은 人文科學資料室, 社會科學資料室, 自然科學資料室의 순으로 저층에 배치한다. 자료실내의 이용공간은 中心部 正方形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학술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기본목표는 실질적인 기능수행의 효율적 지원, 정보봉사력의 극대화, 경영합리화 등으로 설정하며, 구축방향은 전용시스템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범용화, 정보네트워크 중심의 운영체제, 정보검색실의 설치, 전자도서관의 기반조성을 위한 선별적인 디지털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구축모형은 소장자료 및 미소장 데이터베이스의 遠隔接近과 資源共用을 통한 情報檢索 및 提供能力을 제고시키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Strategic Development Planning of Taegu University Library

Hee - Yoon Y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ic development model for the Taegu University Library preparing the 21st centu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ize of collection aim to 697,000 volumes and 1,605 titles until 2000, 975,000 volumes and 3,224 titles until 2005, and 1,185,000 volumes and journals of 6,482 titles until 2010.

2. The library should have 36 professionals until 2000, 53 professionals until 2005, and 69 professionals until 2010. And library should reorganize 3 departments and 14 sections up to 2,000, 6 departments and 22 sections up to 2,010. After that, the university should grope for a best way to combine the library and the CCC (Computing and Communication Center) into a single unit.

3. In case of space plan, it is necessary that library have to the total area of 31,478m². To find the recommended area, the library must improve the ratio of the net space 50 percent to 75 percent.

4. The model of scholarly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a total array of information services to the students and professors, envisioned as typically a user seeking information at a desk and workstation, regardless of format or computing capac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